



사장님용 신메뉴 기획 순서

신메뉴, 감이 아니라 근거로 기획하는 법

아이디어부터 던지지 마세요. 우리 동네와 손님을 먼저 확인하고, AI와 세 번 다듬어 기획서와 홍보물까지 이어갑니다.



CONTENTS · 이 가이드의 순서

01 감 기획의 함정

03 근거 수집 질문 세트

05 포스터·이미지 만들기

02 근거 먼저 프로세스

04 세 번 다듬고 완성하기

06 전체 흐름과 다음 행동



아이디어부터 시작하면 출시 뒤에 빈칸이 보입니다

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장님의 감을 우리 동네·시즌·손님 근거와 연결하지 않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다는 뜻입니다.

CHECK · 이런 순서였나요?

- ☐ 메뉴 이름부터 정했다 — 누구에게 왜 필요한지는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 ☐ 유행한다는 말만 들었다 — 언제, 어디서 확인한 정보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 AI에게 한꺼번에 맡겼다 — 메뉴·이미지·홍보 문구를 한 번에 요구했습니다.
- ☐ AI가 채운 내용을 그대로 썼다 — 사실과 [가정]을 나눠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SHIFT · 순서만 바꾸세요

감부터

아이디어 → 이유 찾기

마음에 드는 답에 맞춰 근거를 고르게 되기 쉽습니다.

근거부터

확인 → 아이디어 만들기

지역·시즌·손님 정보를 모은 뒤 가능한 방향을 비교합니다.

DIVIDE · 내가 줄 것 / AI에 맡길 것

사장님이 알려줄 것	AI에게 맡길 것
업종·동네·주 고객·기존 메뉴·내 아이디어	정보 정리·방향 비교·문장 다듬기
실제 가격·재료·조리 여건·확인한 근거	기획서 형식·후보 정리·홍보 초안

원칙 · AI가 알 수 없는 우리 매장 정보는 사장님이 주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지어내지 말라고 먼저 정하세요.



육류 전문점은 근거 먼저, 아이디어는 나중에였습니다

지역행사·주변 대학 학사일정·최근 1주 관심사를 먼저 모으고, 오늘 시점의 기획 방향을 만든 뒤 사장님 아이디어를 AI로 다듬는 흐름입니다.

FLOW · 근거에서 컨셉까지

01 · 수집

지역·일정·관심사

우리 동네 행사, 주변 일정, 최근 1주 흐름을 모읍니다.



02 · 정리

오늘 기준 기획

날짜와 출처가 확인된 내용만 묶습니다.



03 · 선택

컨셉 4~5개

후보를 비교하고 사장님이 방향을 고릅니다.

LAST MILE · 사장님의 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AI가 먼저 하는 일

근거가 보이는 선택지 만들기

각 컨셉이 어떤 지역·시즌·타깃 근거에서 나왔는지 함께 적습니다.

사장님이 마지막에 하는 일

내 아이디어를 넣고 다듬기

현장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방향을 고르고 "AI로 다듬기"를 요청합니다.

FACT LINE · 섞지 말아야 할 것

구분	표시 방법	다음 행동
확인된 근거	출처와 확인 날짜를 함께 적기	컨셉 재료로 사용
확인 전 정보	'확인 필요'로 따로 두기	링크·공식 공지 재확인
AI의 추측	[가정]으로 표시하기	사장님이 수정·삭제

이 흐름이면 성공 · 메뉴 아이디어보다 먼저 출처·날짜가 있는 근거 묶음이 보이고, 각 컨셉 옆에 "왜 이 방향인지"가 적혀 있습니다.



메뉴를 묻기 전에 근거를 모으는 질문부터 붙여넣으세요

우리 동네·시즌·타깃을 나눠 묻고, 확인된 사실과 확인할 내용을 분리합니다. 실시간 확인이 안 되면 AI가 추측하지 않고 링크를 요청하게 만드세요.

매장 정보

근거 질문

출처 확인

컨셉 후보

PROMPT · 신규 작성

▼ 매장 정보만 바꿔서 붙여넣기

[역할]

너는 신메뉴 기획을 돕는 리서치 질문 설계자야. 지금은 메뉴 아이디어를 내지 말고 근거부터 모아.

[내가 줄 정보]

- 업종·동네:
- 준비하는 시즌:
- 주 고객:
- 기존 대표 메뉴:
-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

[진행 순서]

1. 빈 정보가 있으면 한 번에 몰아 묻지 말고, 필요한 것부터 순서대로 질문해.
2. '우리 동네 행사', '시즌·주변 일정', '최근 1주 타깃 관심사'로 나눠 수집 질문을 만들어.
3. 각 답에는 출처·확인 날짜·메뉴와 연결되는 이유를 붙여.
4.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추측하지 말고, 내가 확인할 링크나 검색어를 요청해.
5. 내가 답하기 전에는 메뉴 아이디어를 만들지 마.
6. 마지막에는 '확인된 근거 / 확인 필요 / [가정]'으로 나눈 근거 요약 완성본을 줘.

CHECK · 질문의 농도

얕은 질문	바꿔 물을 질문
"요즘 뭐가 유행해?"	"최근 1주, 우리 동네 주 고객과 관련된 관심사를 어디서 확인할까?"
"행사 있어?"	"준비하는 시즌 전후 공식 지역행사와 주변 일정을 날짜·출처로 나눠줘."

이 화면이면 성공 · 답변이 '확인된 근거 / 확인 필요 / [가정]'으로 나뉘고, 확인된 근거마다 출처와 날짜가 붙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성하지 말고 세 번 대화해 내 메뉴로 만드세요

요청 → 확인 → 수정의 리듬입니다. 첫 회전은 컨셉, 둘째는 구체화, 셋째는 사장님 아이디어를 살려 내 것으로 만드는 순서입니다.

1회전 · 컨셉

2회전 · 구체화

3회전 · 내 것으로

PROMPT · 신규 작성

▼ 한 회전씩 붙여넣고 결과를 확인하세요

[1회전 · 컨셉]

앞에서 확인한 근거만 사용해 신메뉴 컨셉을 4~5개 제안해줘. 각 컨셉마다 '근거 / 타깃 상황 / 한 줄 메뉴 방향'을 붙이고, 확인 안 된 내용은 [가정]으로 표시해. 아직 세부 메뉴는 확정하지 마.

[2회전 · 구체화]

내가 고른 컨셉은 '{선택한 컨셉}'이야. 이 방향을 메뉴 이름 후보, 핵심 재료, 제공 방식, 손님이 느낄 포인트로 나눠 구체화해줘. 실제 가격·원가·조리 여건은 추측하지 말고 나에게 순서대로 물어봐.

[3회전 · 내 것으로]

내 아이디어는 '{사장님 아이디어}'야. 앞의 근거와 선택한 컨셉을 유지하면서 이 아이디어의 장점은 살리고 애매한 부분은 질문해줘. 답을 받은 뒤 바로 검토할 수 있는 완성본을 만들고, 내가 안 준 부분은 [가정]으로 표시해.

REVIEW · 회전마다 하나만 확인

방향이 맞으면

좋은 답을 다음 재료로

마음에 드는 컨셉을 골라 다음 회전에 그대로 넘기세요.

방향이 다르면

그 회전에서 바로 수정

끝까지 간 뒤 다시 만들지 말고, 어긋난 한 항목만 고치세요.

이 화면이면 성공 · 마지막 답변에 사장님이 고른 근거·컨셉·아이디어가 모두 남아 있고, AI가 보낸 내용에만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빈칸 말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획서를 받으세요

AI가 빈칸만 남긴 틀을 주면 사장님 일이 다시 생깁니다. 끝까지 채운 완성본을 받고, [가정]과 '확인 필요'만 골라 검토하세요.

근거

컨셉

완성본

사람 검토

PROMPT · 신규 작성

▼ 선택한 컨셉 뒤에 붙여넣기

지금까지 확인한 근거와 내가 고른 컨셉으로 신메뉴 기획서 완성본을 만들어줘.

[완성본 구성]

- 한 줄 컨셉
- 이 메뉴가 필요한 타겟 상황
- 사용한 근거와 출처·확인 날짜
- 메뉴 이름·핵심 재료·제공 방식
- 기존 메뉴와 다른 점
- 매장에서 확인할 조리·운영 항목
- 시안에서 확인할 항목
- 홍보 문구 초안

빈칸은 남기지 마. 내가 안 준 일반 정보는 채운 뒤 [가정]이라고 표시하고, 실제 가격·원가·재료 수급·조리 가능 여부처럼 매장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확인 필요'로 따로 모아줘. 확인되지 않은 수치나 사실은 만들지 마.

FINAL CHECK · 사장님이 볼 곳

표시	뜻	처리
근거·출처·날짜	확인해서 쓴 사실	원문과 맞는지 재확인
[가정]	AI가 일반적으로 채운 내용	우리 매장에 맞게 수정·삭제
확인 필요	현장에서만 판단할 내용	주방·거래처·직원과 확인

이 화면이면 성공 · 빈칸 없는 기획서가 보이고, 사장님이 확인할 부분은 [가정]과 '확인 필요'로 한곳에 모여 있습니다.



기획이 끝났다면 메뉴 포스터로 연결하세요

기획서에서 확정된 메뉴 이름·가격·사진·분위기를 준비한 뒤, 아래 원문 프롬프트를 이미지 생성이 가능한 ChatGPT 새 대화에 붙여넣으세요.

PROMPT · 소스 원문

▼ 여기부터 끝까지 복사

[너의 역할]

너는 외식업 사장님을 위해 "인쇄해서 바로 매장에 붙이는" 메뉴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주는 전문 디자이너야. 디자인 용어는 쓰지 말고, 사장님이 알아듣는 쉬운 말로만 대화해.

[결과물 규칙]

- 비율: 9:16 세로형 (A4 인쇄·매장 부착·인스타 공유 가능)
- 인쇄 가능한 최고 화질
- 한글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사장님이 준 그대로 정확히 표기
- 요청하지 않은 외국어(영어·일본어 등) 자동 추가 금지

[진행 순서]

1단계 — 첫 메시지에 아래 4가지를 한 번에 묻는다(그 이상 묻지 말 것).

인사: "안녕하세요 사장님! 매장에 바로 붙일 포스터를 만들어드릴게요. 아래 4가지만 알려주세요 😊"

① 메뉴 사진을 올려주세요 (없으면 "없음").

② 메뉴 이름과 가격 (예: 양념갈비 1인분 18,000원).

③ 원하는 분위기 번호 — ①손글씨·따뜻함(백반·국밥) ②강력 후킹(오늘만!·한정수량!) ③심플·정갈(카페·디저트) ④화려·프리미엄(한우·오마카세) ⑤젊은·트렌디(브런치·SNS).

④ 추가 문구 (가게 이름·영업시간·전화·이벤트 — 없으면 "없음").

2단계 — 빠진 것만 짧게 한 번 더 묻는다(추측해서 채우지 말 것). 사장님이 "다 알아서 해줘"라고 하면 그때만 자유롭게.

3단계 — 정보가 모이면 "감사합니다 사장님! 포스터 만들겠습니다 🍷" 한 줄 후 곧바로 9:16 포스터 1장 생성.

[분위기별 디자인 가이드(생성 시 적용)]

①베이지·크림·우드톤 + 손글씨, 따뜻한 조명 ②빨강·노랑 강한 대비 + 검정 굵은 글씨, 가격 최대 강조 ③화이트 베이스 + 깔끔한 고딕, 여백 넉넉 ④블랙 + 골드 + 명조체, 럭셔리 ⑤파스텔·네온 + 둥근 고딕, MZ 감성.

[공통 필수 규칙]

- 업로드한 메뉴 사진은 그대로 메인으로 (AI가 음식 사진을 새로 그리지 말 것).
- 가격 숫자는 3m 거리에서도 읽히게 크고 굵게.
- 한글 받침·복합모음이 깨지지 않게 각별히 주의.
- 사장님이 준 정보 외 임의 추가 금지 / 9:16 비율 엄수 / 글자·사진은 가장자리 5% 안쪽.

[금지]

디자인 전문용어 사용 / 한 번에 5개 이상 질문 / 가격 추측·임의 할인 표기 / 가짜 별점·인증마크.

이제 1단계 인사말부터 출력해.

게시 전 확인 · 메뉴 이름·가격·영업정보·한글 표기를 실제 정보와 대조하세요. AI가 만든 이미지의 글자는 반드시 사람이 다시 봅니다.



이미지는 한 프롬프트로 한 번에 끝내지 마세요

강의자료의 이미지 6단계 원칙은 '한 번에 하나씩 만들고 확인한다'입니다. 단계마다 기준을 하나씩 확정해야 틀린 지점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6 STEPS · 시안 만드는 순서

01

목표

어디에 쓸 이미지인지 정합니다.



02

기준

메뉴 특징과 원하는 느낌을 정합니다.



03

메뉴 시안

음식이 보이는 방향부터 확인합니다.

04

배치

그릇·배경·여백을 조정합니다.



05

문구

확정한 이름과 가격을 넣습니다.



06

최종 확인

사실·한글·가장자리를 봅니다.

ONE AT A TIME · 수정 말하기

한꺼번에 말하기	한 단계씩 바꾸기
"음식·배경·문구·가격 전부 멋지게 바꿔줘."	"지금은 음식 배치만 바꿔줘. 문구와 배경은 그대로 뒀."
어디서 어긋났는지 찾기 어렵습니다.	바뀐 한 항목을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다면 · 실제 메뉴 사진을 기준으로 쓰고, AI가 음식 자체를 임의로 바꾸지 않게 지시하세요. 시안은 출시 전 확인용이지 실제 메뉴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화면이면 성공 · 바로 전 단계와 달라진 항목이 하나뿐이고, 메뉴 이름·가격·한글 표기는 확정 정보와 같습니다.



리서치에서 홍보까지 한 줄로 이어보세요

연탄구이집 사례의 종합 흐름처럼, 분석과 기획이 먼저이고 이미지와 홍보가 뒤입니다.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각 단계의 기준이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리서치

기획

시안

홍보

HANDOFF · 다음 단계로 넘길 것

단계	이번 단계의 결과	다음 단계가 받는 기준
리서치	출처·날짜가 있는 지역·시즌·타겟 근거	컨셉을 고르는 이유
기획	사장님이 고른 컨셉과 [가정] 표시	메뉴 시안의 방향
시안	한 단계씩 확인한 이미지	홍보물에 쓸 확정 이미지
홍보	실제 이름·가격·영업정보를 넣은 포스터	게시 전 사람의 최종 확인

SAFETY · 출시 전 마지막 점검

- ☐ 근거 — 지역행사·일정·관심사의 출처와 확인 날짜가 있습니다.
- ☐ 매장 사실 — 가격·재료·조리 가능 여부를 실제 정보로 바꿨습니다.
- ☐ [가정] — AI가 채운 부분을 모두 확인하거나 삭제했습니다.
- ☐ 이미지 — 메뉴 모습과 한글이 실제와 다르지 않은지 봤습니다.
- ☐ 홍보 — 확인하지 않은 혜택·성과·인증을 넣지 않았습니다.

근거를 모으고 → 컨셉을 고르고 → 한 단계씩 시안을 만들고 → 사람이 확인한 사실만 홍보하세요.

전체 흐름 완료 기준 · 각 단계의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입력으로 이어지고, 마지막 포스터까지 확인된 정보와 [가정]이 구분돼 있습니다.



막히면 근거부터 확인하고 다음 한 걸음으로 가세요

AI가 엉뚱한 메뉴를 내면 도구부터 바꾸지 마세요. 우리 매장 정보, 근거의 출처·날짜, 세 번의 대화, [가정] 표시를 먼저 확인하면 다시 시작할 지점이 보입니다.

RESET · 막혔을 때 정리

이런 결과라면	다시 확인할 것
어느 가게나 할 법한 메뉴	업종·동네·주 고객·기존 메뉴와 확인한 근거를 다시 알려주세요.
왜 나온 컨셉인지 모름	각 컨셉 옆에 근거·출처·확인 날짜를 붙여달라고 하세요.
이미지가 자꾸 달라짐	한 번에 한 항목만 바꾸고 바로 전 단계와 비교하세요.

근거 먼저 → 세 번 다듬기 → 완성본+[가정] → 사람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

NEXT · 무료로 더 받아보기

① 유튜브 '장사는AI빨' 구독

현장에서 바로 쓰는 AI 활용법과 자동화 사례를 영상으로 보세요.

② 무료 자료실

jangsaai.com/free?utm_source=pdf&utm_medium=menu-guide&utm_campaign=free-pack

③ 따라 하다 막히면 말기

jangsaai.com/apply?utm_source=pdf&utm_medium=menu-guide&utm_campaign=apply

처음부터 큰 메뉴판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 중인 메뉴 하나를 골라, 우리 동네 근거를 모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됩니다.